

韓國社會科學에서의 民族主義研究*

朴 商 台

I. 머리말

II. 뒷북치는 社會科學

III. 우리나라에서의 民族研究
—事例研究

IV. 民族主義에 대한 一般理論—

事例研究

V. 맺는말—科學과 이데올로기

I.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동서 양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투쟁에 더하여 민족주의가 신생국 독립의 이념적 기초로서 국내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9년 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나큰 변화의 하나는 베르린 장벽의 붕괴다. 이것은 자유 이데올로기의 승리라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동서 양 진영으로 분열되었던 냉전시대에 강제로 억압되고 무마되었던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민족적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게 된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련 내에서의 소수민족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과 자치권의 확대, 확보요구와 더불어 동독, 헝가리,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 전역의 대변혁은 서유럽의 공산당은 물론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을 모두 뒤흔들어 놓고 있다.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있겠으나 공산당의 기성간부들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제3세계에서 후진국 종속문제와 국제독점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서구식의 개발모델이 크게 도전

* 이 論文은 第5次 韓中日 政治文化比較 國際學術會議에서 主題發表된 것임.

받았듯이 공산주의적 개발모델이 이제 크게 위협받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어 한마디로 혼란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 줄곧 통일된 민족,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민족성원의 절실한 염원이 되어 왔다. 특히 1980 년대에 들어와 모든 실천적 운동이 민족통일운동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간의 이념적 대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첨예하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민족주의 운동도 각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그 기본적 이념정립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실천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기 보다는 학문하는 이들의 임무이다. 동시에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없이는 이론의 정립은 불가능하며 이론 없이 이념이 정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 많은 학자들이 언필칭 통일 운운하고 민족주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학문적 차원에서 후학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과 유용한 가설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업적은 많지 않다. 이것은 대부분의 논문이나 저서들이 개화기나 일제시기에 나왔던 丹齋나 艮海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민족주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공산, 자유 양대 진영의 직접적 희생물이 된 한반도의 특수성에도 연유한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민족주의 이론이 북한에서 수용될 수 없었듯이 시장경제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어느 이론도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약소국가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도 민족문제연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난 백여년간 사회과학이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왔음을 밝히고 다음 1980 년대 우리나라의 민족이론과 민족주의 연구분야의 대표적 저서 두가지를 예로 들어 그 업적을 평가해 보고 이론적 의의와 과학적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뒷북치는 社會科學

〈민족〉에 관한 연구는 민족주의 연구에 비해 풍부한 문헌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나 민족관계 연구분야에는 이론이 빈약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로서 두가지를 들 수 있다.¹⁾ 첫째는 사회과학이 각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이며 둘째 사회과학은 금세기에 들어와 생명과학(생물학 등)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생물유기체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현상이라고 보게 된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 글의 목적에 해당되는 첫째의 이유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족집단 간의 체질적·문화적 차이와 그 차이에 기초하는 행위상·상호작용상의 결과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오래 전부터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전인자, 種 등에 대한 과학적 개념정립은 후에 인종이란 단어를 낳게 하는 모태가 되었다. 서양 중세 시기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신학적 개념에 의해 설명되었다. 근세 계몽사상 시기에 들어와 인류는 그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각기 공통된 특성의 조합에 의해 種이 결정되고 그것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었다.²⁾ 19세기 말에 이르러 민족연구는 하나의 학문분야로 인정될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인종과 민족 간의 차이는 라마르크(Lamarck)주의적 환경진화론이나 기후결정론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의하면 민족사회 간의 관습이나 민족성, 외모의 차이는 서로 다른 기후와 풍토에서 살게 됨으로써 형성되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각기 특성을 [계속 후대에 물려주

1) Pierre Van den Berghe, *The Ethnic Phenomena*(New York: Elsevier North Holland, Inc., 1981), pp.1~12., 'Introduction'.

2) Ashley Montagu, "The Meaninglessness of the Older Anthropological Conception of Race" Robert K. Yin, ed., *Race, Creed, Color or National Origin*(Itasca, Ill.: F.E. Peacock, Publishers, Inc., 1973), pp.5~8.

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을 환경결정론이라 부른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구미의 사회과학은 Darwin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유전결정론으로 돌아선다. 유전결정론은 인간의 행위, 능력, 성격은 물론 문화까지도 선천적인 생물학적 유전인자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이 유전결정론은 멘델(Mendel)이 1900년 그의 이론을 발표하기 50여년 전에 나왔으나 멘델의 이론을 통해 더욱 그 위치가 확고하게 되었다. 사회적 진화론(Social Darwinism)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론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인 인종주의로 변형되기도 했다. 영국의 스펜서(Spencer), 미국의 쉘너(Sumner) 등은 당시 사회과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학자들로서 사회적 진화론을 주장하여 큰 영향을 남겼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사회과학의 지적인 시계추는 다시 환경결정주의적 방향으로 기울어 갔다. 인류학의 보아스(Boas)와 사회학의 파크(Park) 등 지도적 위치에 있던 학자들은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와 문화결정론을 정립하고 세계 사회과학의 중심이 된 미국의 사회과학계에 이를 정착시켰다. 이들의 영향은 1960년대까지 지속된다. 문화결정론이 나오기 전의 시기에 풍미했던 사회적 진화론은 극단적인 인종주의로 치달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나치즘과 파시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환경결정론에 가까운 문화결정론은 승전국인 미국과 연합국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일시적이거나 연결시켜줄 수 있었던 교리의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민족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독일 출신 反파시스트 망명학자 아도르노를 들 수 있다.³⁾ 또한 스웨덴의 뤼르달은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의 흑인문제를 연구하고 그것이 흑인의 문제가 아니고 백인 자신들의 문제임을 밝혔다.⁴⁾ 프랑스제 벨지움

3) T.W. Adorno,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New York: Harper, 1950).

4) Gunnar Myrdal, *An American Dilemma*(New York: Harper, 1944).

학자 레비·스트로스는 UNESCO의 재정지원을 받아 인종문제에 관한 UN의 지침을 마련했다.⁵⁾ 그의 수많은 학자들이 문화결정론이란 이데올로기적 전선에 참여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인류라는 단일한 種에 소속되며 생물학적으로 의미있는 인종구분은 불가능하며 인종 자체는 사회적 구성물이지만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 둘째, 인간의 지능도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며 지능상의 차이는 인종이나 민족간의 차이보다는 한 인종이나 민족 내에서의 개인간의 차이가 더욱 크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나 자기민족 중심주의는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일 뿐이다.⁶⁾

문화결정론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학습, 사회화, 그리고 문화적변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같은 학문적 신념은 1950년대에 이르러 同和主義(Assimilationism)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족과 인종의 융광로라고 부를 수 있는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파크(Park)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는 同和야말로 민족, 인종관계의 마지막 단계가 되리라고 예상했다. 同和란 이념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적 국가의 지배계층에게는 가장 매력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다. 일부 학자들이 민족감정의 중요성을 거론하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사악한 무리로 보고 보편주의자가 아닌 '특수주의자', '전통주의자', 심지어는 '종족주의자'라고 매도했으며 전통적인 민족감정은 도시화·산업화·근대화 과정에 의해 소멸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민족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시키고 민족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이며 자본주의가 소멸됨과 동시에 민족문제도 소멸되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해 민족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데올로기적인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

5) Claude Levi-Strauss, *The Race Question in Modern Science*(Paris: UNESCO, 1952).

6) Van den Berghe, 앞의 책, p. 2.

하자 사회과학은 바람개비처럼 다시 흔들렸다. 다민족국가인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민족문제가 크게 부상되었다. '민족정체성'과 '뿌리를 찾자는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민족주의 운동이 가장 공업화된 이들 나라에서 크게 일어났다. 정부나 대학의 지식인들은 민족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同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同和로 나아가기 위한 '용광로'라는 이념이 실패했고,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었으며,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하고, 同和는 '민족살해' 정책에 불과하다고 소리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더구나 공산권 내부의 민족적 분열과 제3세계에서의 활기찬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적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새로운 이념의 적합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었다.

이와같은 급선회는 사회과학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갔을 뿐, 여론이나 정부의 정책에 도전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그에 앞서 여론이나 정책을 지도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데올로기를 보조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은 계속 뒷북치기에 바빴던 것이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民族研究—事例研究

우리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기술은 중국의 史記 등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그러나 민족형성에 관한 일반이론은 최근에 들어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역사학·인류학·정치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학술적 논문이 나와 있다. 이들에 대한 시기별·주제별·학문분야별 연구업적의 평가도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의 대표적 연구업적을 소개·평가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미이론을 흡수·소화한 후 새로운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주제적으로 이론을 구성해 놓은 연구업적을 소개·분석하는 것은 다음 세대 학자들의 연구에 이들 연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1980 년대에 들어와 민족형성에 관한 이론적 작업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愼鍾廈 교수의 '민족형성의 이론'을 들 수 있다.⁷⁾ 그에 의하면 민족과 민족형성에 관한 이론은 유럽에서 일찍이 연구되었으나 그 이론들은 지구상의 전체 인류사회의 사실들을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서구의 역사적·사회적 경험에 한정된 것이었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은 근대에 형성된 인간집단의 역사적 범주>라는 이론형성의 과정을 서구 아카데미 사회학과 마르크스주의 학파를 통해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등 고대와 중세에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와 민족을 형성했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학문적 주체성을 발휘하여 여러 민족의 사회사 자료에 기초하여 근대 이전에 민족이 형성됨을 인식하고 <민족은 近代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前近代에 형성되기도 하며 現代에도 형성되는 역사적 범주의 인간집단의 공동체이다>라는 전제하에 포괄적 이론을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⁸⁾

그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언어의 공동, 지역의 공동, 혈연의 공동, 문화의 공동, 정치의 공동, 경제의 공동, 역사의 공동 등 일곱가지의 객관적 요소가 민족형성의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이들에 못지 않게 여덟 번째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관적 요소인 민족의식에 의해 '더욱 공고하게'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식이 없이 객관적 요소만으로 형성된 민족을 即自의 민족(Nation an Sich)이라 하고 민족의식이란 주관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형성된 민족을 對自의 민족(Nation für Sich)이라 명명했다. 그는 이것을 헤겔의 이론을 빌려다가 마르크스가 계급에 적용한 틀을 그대로 민족에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서구이론에서의 민족을 前近代민족과 近代민족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시기적으로 전근대 시기에 일차적으로 언어·지역·문화·혈연·정치의 공동과 부차적으로 경제,

7) 愼鍾廈, '민족형성의 이론', 韓國社會學研究, 7 (1984. 9), 7~52.

8) 위의 글, 9~12.

역사의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即自의 민족>이라고 보고 후자를 <시기적으로 근대에 일차적으로 언어, 지역, 문화, 정치, 경제, 역사의 공동 및 민족의식과 부차적으로 혈연의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對自의 민족>이라고 정의했다.⁹⁾

또한 그는 部族으로부터 前近代민족으로 발전하는 장구한 시기의 과도적 민족공동체를 先민족이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先민족은 본질적으로 혈연공동체인 부족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문화공동체인 前近代민족(때로는 바로 近代민족)으로의 이행 중의 과도기적 공동체로서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 신앙, 관습에 있어서의 공동적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임>을 통일신라시기 이전의 수많은 우리나라 정치공동체를 예로써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의 일부에는 <部族>이 지배하던 시기에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되었던 나라들이 많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까지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연맹을 결성하여 <先민족>을 형성했다가 1945년 이후에 신생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있다. 이와같은 나라들에서는 먼저 <國家>를 건설하고 그 국가의 주민이 속하는 모든 부족들과 선민족을 융합하여 새로이 민족형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들을 <新민족>으로 명명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愼교수의 민족형성에 관한 이론은 서구의 部族—폴크(Volk)—民族으로의 발전과정이나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部族—準民族—民族으로의 발전과정 이론을 크게 수정·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민족의식이란 차원에서 前近代·近代 민족을 구분하고 여러 민족의 형성과정을 통시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先민족과 신민족이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것은 앞으로의 경험적 연구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여덟가지의 민족형성 요건에 대한 경험적 준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의 연구 가설은 큰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前近代

9) 위의 글, p. 33, p. 40 참조.

·近代 민족이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민족의식이다. 여기서 그는 예로써 베버(Wewer)가 민족의식 대신에 민족감정(National Sentiment)이란 말을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족은 대면적(face-to-face) 공동체인 가족과는 달리 대규모의 복잡하고 보다 고차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각과 의식은 고도의 知的 認識(intellectual recognition)을 필요로 한다. 민족의식은 성원의 感情的 성능(affective faculty)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知的 性能(intellectual faculty)에 관련된 것이다. 즉 민족의식은 그 기초의 일부에 민족감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外延과 內包가 크고 차원이 매우 높은 知的 의식인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식은 성원의 感情的 성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가족의식이나 향토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¹⁰⁾

National Sentiments는 우리말로 민족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민족의 공통된 성향이나 지향으로 보아야 된다. 이 성향의 기초 위에 개인과 집단의 가치지향이 형성된다. 이 가치지향은 다시 知的이고 認知的(Cognitive)인 지향과 情誼的·感情的(Cathetic, affective)지향 그리고 도덕적(moral) 지향으로 구분된다.¹¹⁾ 개인과 집단의 수많은 가치지향 중의 일부는 그 사회의 규범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愼교수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민족의식에서 정의적·감정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를 떼어내어 인지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는 물론 장점과 단점이 따른다. 장점으로서 정신적 구성물인 이들 세가지중 한가지만을 다룸으로써 경험적 준거물을 찾기 쉽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적 요소 못지 않게 중요한 나머지 두 요소를 제외하고 민족성향(또는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일한

10) 위의 글, p. 32에서 인용.

11)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New York: The Free Press, 1951), pp. 41~42 참조.

경험적 틀을 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형성을 사회과학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Ⅳ. 民族主義에 대한 一般理論—事例研究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는 민족주의의 개념 정의 여하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족주의에 관한 그리고 민족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민족에 관한 연구만큼 오래되었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족주의에 관한 일반이론에 국한하기로 하며 앞에서의 민족형성 이론연구에 대해 살펴 본 방식 그대로 하나의 대표적 저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¹²⁾ 1980년대에 들어와 민족주의의 이론구조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로서 陳德奎 교수의 '現代民族主義의 이론구조'를 들 수 있다. 민족주의에 관한 외국의 이론을 거의 모두 이용하고 있는 이 저서는 민족주의의 개념구조, 이론적 전개, 사상사적 기반,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민족엘리트 문제, 사회변동과의 관계 등 여덟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광범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 기초한 수많은 주요 외국문헌을 섭렵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대표적 저서로서 꼽힐만 하다. 여기서는 그가 민족주의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¹³⁾

그는 우선 비서구지역을 배제한 이론의 보편화와 보편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은 서구중심사상 내지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데 불과하며 제국주의의 몰락이 필연적임을 경험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국제질서의 재조정은 민족주의의 이념 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그는 민족주의의 개념화에 앞서 민족을 혈연이나 언어 또는

12) 陳德奎, 現代民族主義의 이론구조(서울: 지식산업사, 1983).

13) 위의 책, 제 1편, 민족주의의 개념구조, 11~47. 특히 35~37을 대상으로 함

14) 위의 책, 16~17.

문화집단, 상황적 요인(지역), 정치의 공동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정의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족은 역사적 공감성에 의해서 특정성원들 사이에 운명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집단>¹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두가지 중요한 단어는 역사적 공감성과 운명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이다. 전자는 통시적으로 내외적 충격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비슷한 동일감정을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며 후자는 전자(역사적 공감성)를 통해 나와 남의 관계가 남과 우리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어 그는 민족주의 개념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헤이스(Carton Hayes), 콘(Hans Kohn), 뵘(Max H. Boehm), 스나이더(Louis L. Snyder) 등 역사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고 그들의 장단점을 지적한후 도이치(Karl W Deutsch), 미노그(K.R. Minogue), 쏘나니에키(F. Znaniecki) 등 사회과학자들의 개념정의를 개괄한 후 쏘나니에키의 말을 빌려 민족주의 개념화의 어려움을 민족성이란 개념으로 환원시킴으로 대신하고 있다.¹⁶⁾

그의 가장 큰 공헌은 민족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의 개념화에 있다고 본다. 그는 먼저 민족주의가 하나의 고착된 평면적인 사상이거나 이념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민족주의는 오히려 항상 변화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사상임을 프랑스 민족주의의 변화, 독일·러시아·인도 등의 예로써 설명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두번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민족주의는 그 자체 속에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를 단순히 지나간 역사속의 사실로 추적하거나 또는 한시대의 국민이 보여주었던 공감성이라는 비정형적인 인식논리로만 설명할 경우 그만큼 민족주의의 본질은 밝혀지기가 어렵다. 민족주의는 민족성원들의 비정형적인 막연한 감정상태는 아니다.>¹⁷⁾

15) 위의 책, 22.

16) 위의 책, 23~25.

17) 위의 책, 37.

이어서 그는 현실평가(긍정 : 부정)와 가치단위(개인중심적 민주주의 : 집단주의적 전체주의)라는 두가지의 양분개념을 이용하여 민족주의가 다른 네가지 유형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는 민족주의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평등, 자유, 그리고 자율과 자치의 세가지로 보고 있다. <평등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잠재성을 극대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의 설정을 의미하며> 자유란 <개인적인 자유의 확대를 통한 전체적 자유의 실현>이며 자율과 자치는 <자유와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민족의 존재양식>이라고 한다.¹⁸⁾

이상에서 陳교수의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구조를 살펴보았다. 그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제 학설을 소개·비판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우리나라 국민과 학계에 민족주의에 대한 신선한 사상과 연구방법을 불어 넣어 주고 있음은 높이 평가된다. 특히 민족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의 개념화 시도는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학자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위와같은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있어 그의 이론(가설)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보겠다.

첫째, 민족에 대한 그의 포괄적이고 분명한 정의와는 달리, 그는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을 논의하고도 나름대로의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민족주의를 민족성이란 단일 차원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개념의 정의는 모든 학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각개의 학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특성이나 다루고 있는 사회적 사실·현상에 따라 나름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陳교수의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는 민족주의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 시대,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보편화하는 데에는 더

18) 위의 책, 44~47.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대한 개념화의 시도에서 그가 제시한 두가지의 전제는 서로 모순되고 있다. 그는 먼저 민족주의가 역동적이고 극히 가변적임을 전제하고 다음에는 민족주의의 비정형적인 인식 논리를 배경하고 그 특수성을 추출한 결과 자유·평등·자율과 자치라는 세가지 특성을 모든 민족주의의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 이들 세가지 이념이 모두 기초로써 작용해야 한다면 첫번째의 전제가 그르게 되고 이들 세가지 중 한가지나 두가지가 희생되거나 결여될 수 있다면 이들은 공통분모가 될 수 없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세째, 그가 추출한 자유·평등·자율과 자치는 인류가 고안해 왔고 지향하고 있는 많은 이데올로기의 특성과 구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들 이념은 민주주의의 기초로도 될 수 있으며 세계평화주의와도 상통한다. 또한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를 민족성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역으로 모든 민족성은 동일하다는 뜻으로도 오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족주의를 현존하는 이데올로기 중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그의 권두 논문 서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는 민족주의적 이념의 기초 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든 陳교수의 연구는 한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정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있음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다음세대 학문연구의 길잡이로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설의 정립에는 그만큼 공헌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V. 맺는말—科學과 이데올로기

이 글의 앞에서 우리는 사회과학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추종자 역할

을 해왔음을 구미의 경우를 가지고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먼저 학문과 이데올로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관하고 이데올로기 정립에 있어 사회과학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학문 특히 과학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는 복잡하고 일정치 않다. 이 둘은 모두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연역적 설명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논리적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인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과학적일 필요가 없다. 예컨대, 과학적 연구로서의 마르크스 이론은 사회과학은 물론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귀중한 학문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며 일종의 성서가 되어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은 이데올로기로서, 현실을 과장하고 있거나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위와같은 차이로 인해 과학과 이데올로기는 그 진술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모든 학설은 논리적 전개과정과 경험적 증거에 의해 증명되거나 부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아니다. 따라서 학문적 진술은 일시적이며 언제나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해 바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독단적이고 교조적인 특성에 의해 쉽사리 바뀌지지 않는다. 이데올로기 주창자들도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으나 그 증거는 대부분 유리한 증명을 위해 간추려진 것들이며 불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있어 학문적 설명 즉 학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자기의 가설을 정립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험적 사실을 신중하게 탐구한 후에 자기의 가설을 증명 또는 거부한다.¹⁹⁾

위에 말한 두가지의 차이는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와 학문 모두가 통찰력이나 상상력과 같

19) Harry M. Johnson, *Soci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0), pp. 591~592.

은 형이상학적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²⁰⁾ 물론 이데올로기가 학문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학자도 이데올로기의 주창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에 비해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비교적 회의적이며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에 정통 이데올로기론자들로부터 지식인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과 공격을 받을 뿐더러 회의적인 태도 자체를 과학적인 특성으로 돌리지 않고 기회주의자로 낙인찍어 의심한다. 이와같은 비판과 공격이 민족문제나 종교문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을때 크나큰 압력이 되어 학자들은 대부분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이 이데올로기에 종속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특징한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적 내용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자연집단이 갖는 주체적인 삶의 자기인식이라고도 본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통일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극복하며 이들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민족통일의 지도이념의 확립이며 이것이 민족주의라고 보면 민족주의의 이념적 확립의 필요성은 자명해 진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온갖 구체적 운동들이 일단 민족주의 운동으로 수렴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白樂晴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며 관념적 원리에서 연역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민족이 다른 무엇보다 민족적 연대의식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충분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²¹⁾ 한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이와같은 이데올로기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한 요청 자체가 학계에서 제시된 과학적 연구에 기초하고 있어

20) Arthur Pap, "Does Science have Metaphysical Presuppositions?" H. Feigl and M. Brodbeck(ed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3), pp. 21~33.

21) 白樂晴, '학문의 과학성과 민족주의적 실천', 梁建鎬·姜萬吉편, 韓國民族主義論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421~461 중 456~457.

야 함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운동에 끌려 다니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서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부정적인 측면(역기능)에 대한 연구도 나와야 된다.